

■ 한국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4)

‘중앙학교의 3.1운동과 고하 송진우’

2021년 3월 1일 ‘인촌사랑방(모임)’에서 3.1절 102주년을 맞이하여 중앙학교를 탐방하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북악 기슭의 중앙고등학교 교정에는 20여명의 시민이 모였다. 일행은 교정 중앙에 서있는 6.10만세기념비를 지나 '3.1운동의 책원지'인 숙직실을 찾았다. 그때의 숙직실 자리는 표지판만 남기고, 새로 지은 숙직실을 3.1기념관으로 꾸려 놓았다.

중앙학교 숙직실은 1919년 1월 동경 유학생 송계백이 2.8독립선언서 초안을 소지하고 국내로 잠입한 후 와세다대학교 선배로 중앙학교 교사이던 현상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한 곳이다. 이날 이후 현상윤은 송진우, 김성수와 독립운동의 거사를 모의하고, 최남선과 최린 등이 이곳을 드나들며 3.1운동이 무르익게 된 역사적인 장소다. 그래서 이곳을 '3.1운동의 책원지'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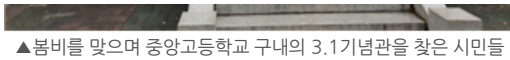


▲ '3.1운동 책원지'를 알리는 비석과 '중앙학교 숙직실 터' 표지판

이들은 전국적인 거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북지방의 기독교세력과 연합기로 의견을 모우고, 오산학교 졸업생인 김도태를 정주로 내려 보내 남강 이승훈과 접촉을 시도했다. 이렇게 서울로 올라온 이승훈은 김성수의 별채로 이용하던 계동 132 김사용의 집에서 송진우와 현상윤을 만나 제후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날이 2월 11일이다.

이때까지 국내의 8군데에서 태동하던 3.1운동은 이때를 기점으로 연합했다. 3.1운동이 단일화 되는 분수령이 었다. 그런데 그 역사적 현장에 들어서서는 순간 너무 놀랐다. 겉은 그런대로 모양새를 갖춰놨으나, 실내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유품이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것이 마치 폐가처럼 느껴졌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인촌이 친일파로 몰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탓으로 중앙학교의 3.1운동이 평가 절하되었기 때문이다.





▲봄비를 맞으며 중앙고등학교 구내의 3.1기념관을 찾은 시민들

그날 한 언론인에게서 “3.1운동은 우남과 인촌 두 분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의도에는 이승만의 3.1운동 기획설이 깔려있다. 3.1운동은 이승만이 김성수에게 밀서를 보낸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승만 밀사론’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시 대두하자, 그 진위를 묻는 질문이었다.

필자는 순간 당황했다. ‘이승만의 3.1운동 기획 설’은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설(異說)로서, 중앙학교의 3.1운동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 주장은 이러하다. 1918년 10월경 이승만이 밀사로 보낸 여운홍이 밀서를 휴대하고 김성수를 찾아왔다는 것으로, 송진우 일대기인 《독립애의 집념》에는 이승만의 밀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월슨 미국 대통령이 구상한 민족자결론의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이번 강화회의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생활을 만방에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미국에 있는 동지들도 이 구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하기 바란다. 중국에 망명 중인 망명객들은 파리에서 열릴 강화회의에 한민족 대표로서 김규식을 파견기로 결정 하였으니, 국내에서도 이 구국운동에 호응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협조해 달라.”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3.1운동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필자는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찾아 나섰다. 어렵지 않게 처음 출처는 1965년에 나온 《고하 송진우 선생 전》(이하 <고하 전기>로 표기)이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고하의 일상생활에 감돌던 망국의 우울은 1918년 10월에 접어들면서 점점 견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족 독립의 서광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 설산 장덕수가 중국 상해에서 밀명을 띠고 들어온 것이다. 중국에 망명 중인 망명객들은 파리에서 열릴 강화회의에 한민족 대표로서 김규식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니, 국내에서도 이 구국운동에 호응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협조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고하와 인촌은 설산과 함께 필요한 자금과 절차를 꾸미고 있는데, 때마침 12월에 우남 이승만이 보낸 밀사 모(某)가 밀서를 전달해 왔다. … 이와 전후하여 고하를 중심으로 국내 세력은 고하가 묵고 있는 중앙학교 뒤 숙직실을 총본부로 삼고 활동을 개시했다. 고하는 설산에게 국내 일을 전부 자기네에게 맡겨주길 간청했다.

그 길로 설산은 동경으로 건너갔다. 동경 유학생들과 연락하기 위해서였다. 우남의 밀사도 미국으로 떠나보내면서 “국내 일은 우리가 맡아 할 테니, 다시 정세가 달라지는 대로 연락해주기를 바란다.”하고 답장을 했다.”

이 글을 읽어보니 내용이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필자가 1985년 3.1운동에 관한 논문으로 학계에 데뷔할 때, 국내외에서 3.1운동이 태동한 8군데 세력을 고증하면서 ‘중앙학교 사료’는 구전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오류가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학문적으로 인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자료 역시 출처불명의 구전자료로 보인다.

무엇이 오류인지를 검증해보자. 위의 내용은 정리하면, 1918년 10월 장덕수가 상해에서 밀명을 띠고 입국하여 송진우, 김성수와 거사를 논의하던 중, 12월이 되자 이승만이 밀사를 보내왔다. 이를 계기로 국내 일은 송진우에게 맡기고, 장덕수는 동경으로 건너가서 2.8독립선언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의 전후 관계가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장덕수 자료’에 의하면, 상해에 머무르던 장덕수는 1919년 1월 27일 상해를 떠나서 며칠 뒤 동경에 잠입했으며, 그곳에서 2.8독립선언을 목격한 후에 2월 17일 동경을 떠나 20일 서울에 도착했다. 즉, 장덕수가 1918년 10월 밀명을 띠고 서울을 방문했다는 것이나 그 이후의 행적 모두가 오류인 것이다.

게다가 이승만과의 관련성도 정확하지 않다. 시기도 불투명하거나 이승만이 보냈다는 밀사 이름도 밝히지 않고 모(某)라고 표기했을 따름이다. 이로 인해 중앙학교의 3.1운동은 신뢰를 얻기가 어려웠다. 아마 내용 중에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미확인된 누군가의 증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 《고하 송진우 선생 전》(1965)와 《독립에의 집념》(2022)

그런데 <고하 전기>를 편찬했던 동아일보는 20년이 지난 후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이하 <인촌 전기>)를 발간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수록하였다.

"1918년 12월 어느 날, 미국 워싱턴에서 재미 동포들과 구국운동을 하는 이승만이 밀사를 보내 왔다. 밀사는 이런 내용의 밀서를 휴대하고 있었다.

'월슨 대통령의 민족자결론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되는 이번 강화회의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생활을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미국 동지들도 구국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주시 바란다.'

12월이면 1차 대전이 막 끝난 시기, 다급해진 이승만의 재촉이었다."

이처럼 동아일보가 간행한 <고하 전기>와 <인촌 전기>에는 이승만의 밀사가 누구인지 언급이 없다. 그런데 1995년 중앙일보가 '이화장 자료'를 발굴하여 <이승만과 대한민국 탄생>을 기획기사로 보도하면서, 그 밀사가 누구인지가 밝혀졌다.

"1918년 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이승만은 호놀룰루에서 한인기독학원 일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는 세계 대전을 마감하는 강화회의에서 약소국의 독립문제가 거론될 것을 예상했다. 특히 그는 승전국 미국의 대통령이며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한 은사 월슨이 강화회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리라 판단하고 이 국제회의에 몸소 참석, 월슨을 설득해 한국 독립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자기 계획을 1918년 10월 하와이를 방문한 여운홍과 미국 선교사 사록스를 통해 국내 민족 지도자들(송진우, 함태영, 양전백)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적시에 자기의 외교에 호응하는 대중운동을 펼쳐줄 것을 기대했다." - 제16회 '이승만과 3.1운동' 중에서

동아일보 측이 말한 이승만의 밀사가 여운홍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듬 해 중앙일보에서 출판된 유영익의 《이승만의 삶과 꿈》에도 수록되었다. 그렇지만 내용상의 차이점도 발견된다. '밀사'와 '밀서'란 단어가 없다. 이승만이 여운홍을 하와이로 불러서 밀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여운홍 일행이 귀국하는 길에 이승만을 만나러 갔다가 듣게 된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이승만의 메시지가 국내에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운홍의 당시 행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여운홍의 귀국 여정과 이승만 밀사에 관한 일화는 이러하다. 미국에 유학 중이던 여운홍은 1918년 11월 스페인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프린스턴대학교 신학원을 중퇴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12월에 하와이에서 이승만을 예방하여 밀서를 받았으며, 이어 일본을 경유하는 길에 2월 초 도쿄에서 2.8독립선언의 거사를 듣고 이승만의 동향을 전했다. 이렇게 하여 여운홍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2월 18일이다.

그런데 필자는 동아·중앙 양측의 주장이 모두 허구임을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자료를 만났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여운홍이 그때의 여정을 기록한 「파리강화회의에 갔다가」라는 여행기를 발견한 것이다. 1930년 11월 1일자로 나온 <삼천리> 제10호에 실린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여운홍의 파리강화회의 참석기가 실린 <삼천리> 10호(1931.11)

"그것은 실로 1918년 11월 11일이었다. 오후 2시쯤이나 되었을까. (1차 대전) 휴전조약이 성립된 것이다. 나는 그 수 일 후에 워싱턴의 백악관을 찾아 윌슨 대통령의 비서인 글라스 씨를 통해 여러 가지 나의 결의를 전하였다.

나는 백악관을 나온 후 곧장 뉴욕으로 가서 헐버트 씨를 만났다. 그는 헤이그밀사사건 때 많은 애를 쓴 분이다. 내가 찾아 온 뜻을 밝히고 이 길로 파리강화회의에 가겠다고 하니, "그냥 빈손으로 가면 소용이 없으니 본국으로 돌아가서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파리로 오라"고 하였다.

나는 다시 로스엔젤리스의 안창호 씨를 찾아가서 여비를 달라고 요청하니, 민찬호, 정한경, 이승만, 이대위 씨 등이 그 자리에서 회의를 열고 300달러를 지원해주었다. 나는 그 돈으로 천신만고 끝에 여권을 받고 배편을 이용하여 2월 1일 일본 동경에 도착하였다. 동경에서는 최팔룡 군을 만나 그 준비 상황을 듣고 뜻을 같이 하면서 서울로 들어오니 2월 18일이었다.

이(상재), 함(태영), 최(린) 등을 만나니, 국내 일은 벌써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속히 갈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 나는 2월 26일에 누구도 모르게 서울을 떠나 (중국)안동에서 기차 편으로 상해까지 무사히 갔다. 거기서 5월 초순에 본래 목적지이던 유럽의 파리로 갔다."

여운홍의 여행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그가 도쿄에 머무를 때는 이미 2.8독립선언이 완료되었고, 서울에 왔을 때도 민족대표들을 중심으로 3.1운동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이런 연유로 그는 2월 26일 서울을 빠져나간 후 중국 안동역에서 기차로 상하이로 이동했고, 5월 초에는 다시 상하이를 떠나 6월 20일 파리에 도착하였다. 여운홍의 행적에서 이승만의 밀서를 비롯하여 3.1운동 발발과는 어떤 관련도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승만의 밀서가 3.1운동을 일으켰다"라거나 "3.1운동의 불꽃을 당긴 사람이 이승만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궤변이다. 이 때문에 <고하 전기>에 수록된 이승만 밀서 부분의 오류를 시정하지 않으면, 한국민족운동사에서 고하 송진우의 민족운동이나 중앙학교의 3.1운동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중앙학교의 3.1운동은 언제부터,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다시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민족대표 48인'의 1인이면서 고려대 총장이던 현상윤이 1946년 3월 <신천지>에 「3.1운동의 회상」을 발표하는데 이어, 1950년 3월에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3.1운동 발발의 개략」으로 다시 발표했다. 그가 6.25 전쟁으로 납북되기 전에 남긴 글을 통해서 중앙학교의 3.1운동을 비교적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을 포함한 14개조의 원칙을 발표한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원칙에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때 나는 중앙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중앙학교는 배일분자의 소굴이어서 경성은 물론이요, 동경, 상해, 미주에서 오는 동지들의 연락과 내왕이 많았다.

우리들(송진우, 김성수, 현상윤)은 독립운동을 실현하려면 천도교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 생각하고, 천도교가 경영하던 보성학교 졸업생인 내가 나서서 보성중학교장 최린과 송진우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후부터는 송진우와 내가 최린의 제동 집을 거의 매일 밤 방문하였다."

현상윤의 글을 보면 중앙학교의 3.1운동은 명확해진다. 1918년 11월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세계 질서를 논의할 파리강화회의가 1919년 1월 18일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송진우, 김성수, 현상윤 세 사람은 수시로 모여서 독립운동에 관해 상의했다. 그러던 중 구체적인 거사 계획으로 천도교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이다.

"최린은 처음에는 자중론을 주장하다가, 내외의 정세가 점차 긴박해가는 것을 보고 운동에 찬성했다. 홍콩의 <이그제너미>에 이승만 김규식 양 씨가 파리강화회의에 출석한다고 보도가 되었으며, 상해에 있는 여운형, 장덕수, 선우혁 등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선우혁을 평안도 지방에 파견하여 은밀하게 기독교인을 선동한다는 정보가 있고, 여운형이 미국에서 귀국하여 미주에서도 운동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권동진, 오세창, 최린 세 사람이 손병희를 달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해의 신한청년당에서 선우혁을 국내에 파견한 무렵이라는 점에서 1918년 12월에서 1919년 1월 사이로 추측이 된다. 다시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그런데 그때 마침 동경 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을 준비하며 밀사로 보낸 송계백이 선언서 초본을 가지고 찾아왔다. 이것을 송진우와 최남선에게 보여주자, 최남선은 심기일전하여 참가를 약속했다. 우리는 다시 손병희를 찾아가서 천도교의 참가를 승낙 받았다. 이날 밤 최린, 최남선, 송진우와 나는 최린의 집에 모여 축하 술잔을 나누면서 밤새도록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었다."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2019년 1월 송계백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중앙학교와 천도교 간의 제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문과 공판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모두가 입이라도 맞춘 듯이 송계백이 찾아온 날로부터 사건을 진술했다.

그러면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상황을 복기해보자. 1919년 1월 초 송계백이 중앙학교를 찾아와서 2.8독립운동의 계획을 알리고 2.8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김성수는 송계백이 요청한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활자보따리와 활동비를 제공하면서, 반드시 거사를 성공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때를 계기로 3.1운동의 전국적인 단일화 작업은 가속화된다. 이들은 평양을 중심한 평안도 지방의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여 천도교와 연계시킬 목적으로, 2월 8일 오산학교 졸업생 김도태를 평북 정주의 이승훈에게 내려 보내 급히 상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승훈은 11일 아침에 상경하여 계동 김성수의 별채에서 송진우, 현상윤, 김성수 3인을 만났다. 이 자리가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계를 통해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단일화되는 역사적인 자리였다. 현상윤은 그날의 현장을 이렇게 설명한다.

"송진우와 나, 그리고 김성수는 이승훈을 만나 그동안 재경 동지의 계획과 천도교의 동향을 설명하고 기독교 측의 참가와 동지 규합의 일을 요청하니, 이승훈은 당시 선우혁이 상해로부터 관서지방에 잠입하여 "김규식을 파리로 보내는데 재정적으로 협력할 것과 또 국내 동포도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관서지방의 기독교인들도 대단히 동요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승훈은 즉석에서 우리의 요구를 쾌히 수락하고, 김성수로부터 1천원의 운동비를 받아가지고 그날 밤 차로 관서지방을 향하여 출발했다.

그 후 이승훈은 질풍뇌우(疾風雷雨, 몹시 빠르고 거세게 부는 바람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와 같이 평안 남·북도를 순행하여 장로교의 길선주 양전백 이명룡 유여대 김병조와 감리교의 신흥식 등을 만나 민족대표 참여를 승낙 받고 또 그들의 인장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승훈이 중앙학교 인사들을 만나 3.1운동을 모의한 계동 132 인촌의 별채

이렇게 이승훈은 송진우와 약속한 대로 평양과 선천에서 민족대표 6명을 얻고 16일 밤차로 상경했다. 이때부터 이승훈과 송진우는 소격동 사шат집에서 비밀 회동을 갖고 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후 이승훈은 매일 같이

사람을 만나면서 YWCA와 감리교 인사를 규합하고, 일시적으로 균열이 생겼던 천도교 측과의 연계도 최린과 협력하며 원만하게 성사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천도교 15인, 기독교 16인에 불교 2인이 참여하는 민족대표 33인이 확정되었다.

박희도와 이갑성은 독립운동을 추진하던 학생들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28일 연희전문학교 김원벽, 보성전문학교 강기덕, 경성의학전문학교 한위건 3인을 앞세워서 승동교회에 시내 중등학교 대표자와 남녀 전문학교 대표자 10여명을 소집하고 시위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전달했다.

한편 송진우와 현상운은 이보다 앞서 보성전문 졸업생 주의를 통해 전문학교 학생 중에서 대표될만한 인물들을 탐색하여 장래 시위운동의 중핵체(中核體)를 구성하고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거사일이 가까워지자 송진우는 김성수를 설득하여 27일 고향 줄포로 내려가서 3.1운동의 현장을 피하도록 했다. 중앙학교를 지키고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송진우의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송진우와 현상운은 구속되었다. 이들은 심문을 당하면서도 김성수의 가담 사실은 철저히 부정했으며, 공판 결과 두 사람 모두 무죄로 석방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중인 송진우

이때 남강 이승훈이 경영하던 정주의 五山학교는 일본 헌병에 의해 불탔지만, 중앙학교는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인재를 양성하여 '제2의 3.1운동'으로 불리는 1926년의 6.10만세운동에도 중앙학교 학생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때도 송진우는 6.10만세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종로 경찰서에 불려가서 심문을 받았지만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 서울 중앙고등학교 3.1운동기념비(좌)와 6.10만세기념비(우)

그러나 그해 3월 '3.1운동 7주년 기념사'와 관련하여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던 것이 11월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하게 되었다. 이듬 해 2월에 단행된 히로히토 천황 즉위 기념식에서 특별사면 되었지만, 송진우의 3.1운동은 7년을 끌었던 셈이다.

이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중앙학교의 3.1운동'은 3.1운동이 태동한 8군데 세력 중에 본류에 해당한다. 서울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거쳐 지나가며 그들의 소식이 모이던 불령선인들의 요람이다. 송진우는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중앙학교 교장을 역임하면서, 그 중심에서 기획하고 조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동지이자 후원자인 인촌 김성수와 독립정신이 투철한 유능한 참모로 기당 현상운이 자리했다.



▲중앙고보 제1회 졸업식(1922.3.18.) - (좌)김성수 최두선 송진우 현상운

이러한 세 사람의 이상적인 조합이 3.1운동의 단일화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중앙학교의 3.1운동을 대하드라마에 비유하면 송진우와 현상운은 기획과 연출을 담당하였고, 김성수는 제작자이다. 이들이 상호협력하면서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민족운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 덧붙이는 글

지난 번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후 꽤 많은 독자로부터 반응이 왔다. 그 중에는 “동아일보 역사에 저런 일이 있었나?”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독자도 있었다. 대부분의 독자는 필자의 논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개 중에는 “역사를 너무 이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독자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동아일보 개혁파 기자들 가운데 유독 사회주의자가 많았고, 홍명희 또한 박헌영을 비롯한 신사상연구회 회원들을 입사 시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인촌이 처음부터 동아일보 사주(社主)였다는 생각에서 필자의 주장을 반박한 경우도 있다. 그것은 기존의 편견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시 동아일보의 주식 분포는 인촌이 6.7%를 소유한 1대 주주일 뿐, 사주의 위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인촌의 3형제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경영권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식 매집에 나선 결과, 1929년부터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1924년 동아일보 사장 선거에서 고하가 남강을 끌어들여 인촌의 경영권을 방어하도록 한 사건은 언론 경영인으로서 고하의 탁월함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